총선 D-7 '르포' - 광주 서구 갑 가 보니

"맨 날 찍어줘도 되는 게 없더라…"

민주당 애증, 집권 한나라당 우려 목소리 뒤섞여

조영택 '한나라 견제' 정용화 '지역 대변자' 호소

총선을 8일 앞둔 1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의 민심은 들끓고 있었다. 맨 날 찍어도 되는 게 없더라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 혼자 해먹게 놔 둘 수 없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우려가 뒤섞였다. 특정 정당 후보에 몰표를 주던 예전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과일 좌판을 벌이고 있던 이모(여·53)씨는 "장사 15년 동안 민주당만 찍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염증이 나서 안 찍을 것"이라며 친한나라당 의사를 내비쳤다. 일부 상인들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 사무실을 찾아 이명박 정부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밑바닥에 깔린 반 한나라당 정서와 불신감도 여전했다.

옆 좌판의 노모(여·72)씨는 "그래도 민주당 조영택이를 찍어야지, (한나라당) 혼자 다 해먹게 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라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거여(巨與) 견제론이 양동시장의 밑바닥까지 파고든 것이다.

커튼 가게 정모(69)씨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서 여당 의원도 필요한데…"라면서도 "대통령 취임할 때만 해도 기대했는데, 물가는 자꾸 뛰고 자기 쪽 사람들만 심어서 영 내키지가 않아"라고 혀를 찼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많았다. 시장 입구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여·64)씨는 "민주당이 잘해서 30년 넘게 찍어준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후보 얼굴 한 번 못 봤다"면서 "누가 누구인지도, 뭘 하겠다는 지도 모르는데 신발 닳아지면서 투표하러 갈 맘이 안 난다"고 말했다.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늑장 공천한 데 대한 반감이다.

중산층이 밀집한 치평동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문모(여·39)씨는 "아직 마음에 드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조영택 후보도 서민들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정용화 후보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나라당이라서…"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애증과 여당과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외에 부동층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편, 조영택 통합민주당 후보는 이날 상록회관 앞, 양동 노인복지회관, 광천동 일대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한나라당 견제와 지역발전 적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정용화 한나라당 후보도 광천동 금호월드 인근과 광천시장 일대 등 주민들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펼치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달라"고 표밭갈이에 총력을 폈다.

이외 김남희 진보신당 후보와 문상필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무소속 강주일, 국충현 후보 등도 표심을 좇아 잰걸음을 계속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8대 총선을 8일 앞둔 1일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 앞에서 한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벚꽃 구경을 나온 지역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민주당 "100석 미달" 비상

지도부 총출동 "견제 야당 만들어 달라" 막판 읍소

4·9 총선이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 '견제 야당'을 만들어달라며 막판 읍소에 나서고 있다.

총선 초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판세가 중반전 이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민주당은 개헌저지선에도 못 미치는 60~80석에 그쳐 사실상 한나라당의 권력독점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분석 결과,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은 물론 안정 과반 의석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개헌저지선(100석)에 훨씬 못 미치는 65~9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군소 정당과 우세를 보이고 있는 무소속 후보도 사실상 한나라당 색채에 가깝다는 점도 민주당의 위기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등 군소정당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연대에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권력독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손학규 공동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엄살이 아니라 정말 어렵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이 180석을 차지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하면 뭐든 못하겠느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유종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 언론사의 판세 보도가 경합지역 보도로 나오고 있어 일방적 우세지역이 한나라당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일반 국민에게 감춰져 있다"면서 "언론에서 분류한 경합지역의 절반을 우리가 이긴다 해도 전체 의석은 비례대표까지 합쳐 80석 안팎 밖에 안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과 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111개 지역구가 걸려 있는 수도권에서 선전하지 못하면 목표달성이 힘들다고 보고 엿새째 수도권에서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집중적인 유세를 펼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과반 획득 무난하다"

판세 자체 점검…'정당 대 정당' 대결 구도 우세

한나라당은 총선이 8일 남은 1일 각 언론사 및 자체 조사를 종합해 중반 판세를 점검한 결과 과반 획득은 무난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표율이 50%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수록 '정당 대 정당'의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여러 종합적인 여론조사 결과나 지역보고 자료를 참고하면 과반수 확보에는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선거 10일 전부터 5일 전 사이에는 부동층이 요동을 치는 것이 관례"라며 "부동층도 대체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정당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본다. 정당지지도가 우리가 높고, 부동층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나라당은 자체조사 결과 이미 120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승세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5~30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만 합하더라도 과반인 150석 안팎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30~40여 곳에 이르는 경합지역 선거 판세는 단순 과반이냐 안정 과반이냐를 가르는 변수일 뿐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 전선에는 별 탈이 없다는 것이다. 경합지 성적에 따라 많게는 180석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경우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한나라당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날 보도된 방송사(MBC-KBS) 여론조사 결과, 조사가 실시된 전국 116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 강세 지역은 61곳, 민주당은 41곳으로 나타났다. MBC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158~170석, 민주당 75~90석의 획득을 예측했다.

물론 당내에서는 아직도 신중론은 있다. 하지만, 이는 야당의 '견제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것이 변수다 ③ 20~30대 투표율

젊은 표심 승패 가른다

투표율 높을 땐 광주·전남선 민주당 보다 한나라당 유리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20~30대 젊은 층 투표율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난달 21일 현재 광주지역 총 유권자 수는 103만4천680명. 이 중 20대 이하는 23만6천864명으로 전체의 22.9%, 30대는 24만6천769명으로 전체의 23.8%에 이른다. 전남의 경우도 전체 유권자는 149만7천844명으로 이 중 20대 이하는 17.4%인 26만88명, 30대는 17.8%인 26만6천196명이다.

문제는 20~30대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다는 것. 지난해 말 치러진 대선 투표율은 63.0%.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6.6%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25~29세)이 42.9%로 가장 낮았다.

또 60세 이상 76.3%, 40대 66.3%, 30대 후반(35~39세) 58.5%, 30대 전반(30~34세) 51.3%, 20대 전반(20~24세) 51.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도 높았다. 다만,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20대 후반보다 높은 것은 군 복무자의 부재자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젊은층의 투표 기피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같이 투표에 소극적인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전국적으로 통합민주당 대 한나라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예측이다. 이는 지난 대선과 달리 20~30대 젊은 층의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인 반면, 50대 이상은 한나라당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당세가 현저히 약한 광주·전남에서는 연령대별 성향이 전국적 현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일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동교동계 인사와 유력 인사에 대한 선호도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만 20대 이하 젊은 층 유권자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광주·전남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교동계 출신 무소속 후보에게도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시 공고 제2008-123호

나주미래일반산단 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가. 개발계획
  ○ 단 지 명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 위 치 :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장산리, 양산리, 덕산리) 일원
  ○ 개발면적 : 2,955,664㎡
  ○ 사 업 비 : 약 3,320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나. 주민 의견 청취 방법
  ○ 열람기간 : 2008. 4. 2. ~ 4. 15.(14일간)
  ○ 열람 및 의견 제출처
   - 나주시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FAX 061-330-7984)
   - 왕곡면사무소 (FAX 061-330-7803), 이창동사무소 (FAX 061-330-7819)
 다.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비치)
2.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 (☎ 061-330-4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일

나 주 시 장

산행안내

4월 3일(목)

▲가고파 산악회 전남 강진 주작산 4월3일(목)운천저수지 7시10분 출발(쌍촌동 해태마트7시30분,광주역8시,운정회 경유) ※다음카페:광주가고파산악회 T.011-679-2678, 011-601-8238
▲광주목요산악회 전남 진해 장복산 4월3일(목) 광주역 8시 출발 ※다음카페:빛고을목요산악회 T.011 9601 8258, 011 441 8845
▲광주한국산악회 해남 달마산 종주 4월3일(목) 염주체육관 7시50분 출발(문예회관 경유) T.011-615-2279

4월 5일(토)

▲광주토요산악회 진해 시루봉-군항제 4월5일(토) 염주체육관 7시30분 출발(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cafe.daum.net/gwangjutoyo T.011 608 4267, 011 634 2044
▲팔성산악회 거문도 백도 동백축제 관매경 수월산 4월5일(토) 백운노터리 관성관광 앞 5시30분 출발 회비:70,000원 누시락 지참 T.011-605-3477

4월 6일(일)

▲광주알피인클럽 진해 장복산 종산 4월6일(일) 6시30분 하남하이마트 출발(염주체육관, 비엔날레 주차장) ※다음카페:cafe.daum.net/kjwhitetiger T.011-624-5005
▲광주 우보회(제1923회차) 경남 통영 연화산(섬산행) 4월6일(일) 7시30분 염주체육관 출발(대인광장 경유) T.011-9600-5364, 019-656-9498
▲한올산악회 진해 웅산 4월6일(일) 7시30분 국제호텔 건너 편 광주은행 앞 출발(문예회관 후문 경유) T.011-645-3371, 011-635-9329
▲팔성산악회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 4월6일(일) 7시30분 백운노터리 출발(광주역, 예술후문 경유) ※다음카페:팔성관광 T.011-605-3477
▲무등산악회 충북 보은보봉 (사지-보봉-상학봉-묘봉-서사미기암) 4월6일(일) 7시 출발 롯데백화점 정문(두암동 은행원 경유) T.011-602-6278
▲호남산악회 여수 영취산 진달래꽃 축제 4월6일(일) 광주역광장 8시 출발(예술회관 경유)※다음카페:광주 호남산악회 T.010-6246-7231, 011-9621-8851
▲요산회 구천 운악산 4월6일(일) 광주역 6시출발 T.016-611-1509
▲전남산악회 백두대간 빈소 감천 황악산 4월6일(일) 광주역 7시 출발(두암동 홈플러스 경유) ※다음카페:전남산악회 T.010-9776-3630, 011-642-5197
▲빛고을외오름 진안 마이산 벚꽃 산행 4월6일(일) 염주체육관 6시40분 출발(고려시멘트, 신성홈플러스 경유) T.011 609 7159, 010 5096 1138, 010 6601 9774
▲보라미 산악회 경남 거제 소매물도 4월6일(일) 염주체육관 7시30분 출발(광주역, 두암동 은행원, 두암동 삼성홈플러스 경유) T.011-645-7796
▲나시모산우회 호남정맥 (활인동치~부내재) 4월6일(일) 염주체육관 7시10분 출발(광주역, 예술후문,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T.011 643 1804
▲광주신길따라 산악회 경남 하동 성제봉 4월6일(일) 남광주 시장 7시 출발(남광주 농협, 염주체육관, 한국병원 앞, 문예예술회관후문 경유) ※다음카페:광주신길따라 산악회 T.011-537-2185, 016-9774-3373
▲요산요수산악회 양산 천성산 4월6일(일) 전대병원 응급실 건너(지하철 3번 출구)앞~광주역~동광주 7시 출발 ※다음카페: (사)요산요수산악회 T.011-620-2002
▲광주산사랑모임산악회 경남 통영 사량도 칠현산 4월6일(일) 염주체육관 7시 출발(무등경기장 후문, 문예회관 후문, 비엔날레주차장 후문 경유) ※다음카페:광주산사랑모임 T.010-7171-2682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망운산-철쭉산행 4월6일(일) 광주역 광장 앞 7시 출발(운암동 후문,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회비:20,000원 ※다음카페:광주한빛산악회 T.010-3131-3580

4월 7일(월)

▲광주명문산악회 전남 여수시 영취산 4월7일(월) 8시 광주역 출발(문화예술회관 후문 경유)※다음카페:cafe.daum.net/ppopjo555 T.011-644-6605, 011-633-9248

4월 8일(화)

▲우리산악회 전남여수 호랑산,영취산,진례산 4월8일(화) 7시30분 진월동 해태마트 출발(백운동 백운우체국 앞, 광주공원, 서방 은행원, 삼성홈플러스 경유) T.011-605-5034
▲염주산악회 영암 월출산 4월8일(화) 8시 염주체육관 출발(문예회관 후문 경유) T.011-608-2208

4월 9일(수)

▲광주알주산악회 4월9일(수) 경남 합천 가야산 8시 광주역 출발 T.011 602 3709

4월 10일(목)

▲광주산마루 말레이시아 키나발루산(4,101m)등산 후 사파섬 관광 4월10일 출발(4박5일), 중국 황산 서해대협곡-광주관광 5월7일 출발(4박5일) ※다음카페:광주 산마루 T.011-612-1770
▲광주한국산악회 완도 청산도 보길산행 4월10일(목) 염주체육관 7시50분 출발(문예예술회관 경유) T.011-615-2279

4월 12일(토)

▲광주토요산악회 4월12일(토) 6시30분 염주체육관 출발(광주역,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cafe.daum.net/gwangjutoyo T.010 3608 4267, 011 634 2044
▲광주 참살이 산우회 경남 창녕 화왕산(진달래) 4월12일(토) 7시 출발 염주체육관(문화예술회관 후문 경유) T.011-635-8783, 010-2663-6294
▲광주금강산악회 여수 영취산 4월12일(토) 염주체육관 7시30분 출발(문예회관후문 경유) ※다음카페:광주금강산악회 T.017-603-4900, 011-624-8004

4월 13일(일)

▲광주알프스산악회 전북 장수 영취산 백운산 진달래 꽃 4월13일(일) 8시 대인광장 출발(두암동 홈플러스 경유) T.267-5307, 010-4616-1460
▲광주 자연보전산악회 거제 노자산~가라산 4월13일(일) 8시 구동경기장 출발 ※다음카페:cafe.daum.net/JAYNSAN T.011 666 3291
▲광주알피인클럽 가야산 암릉산 4월13일(일) 6시30분 하남하이마트 출발(염주체육관, 비엔날레 주차장) ※다음카페:cafe.daum.net/kjwhitetiger T.011-624-5005
▲솔암산악회 여수 영취산 진달래꽃 축제 4월13일(일) 광주역 8시 출발 ※다음카페:광주솔암산악회 T.011 605 5034, 010 9624 6649
▲광주 산가족 완도 청산도 매봉산,보적산 4월13일(일) 대인광장 8시 출발(동광주홈플러스 경유) T.019-499-1406, 011-9608-3357

4월 19일(토)

▲광주한길산악회 홍도 가거도 및 가거도 1박2일 4월19일(토)~4월20일(일) ※다음카페:광주한길산악회 T.222 3253, 010 7619 0559

4월 20일(일)

▲요산요수산악회 청산도 매봉산 4월20일(일) 6시 출발 전대병원 응급실 건너(지하철 3번 출구)앞~백운동 T.011-620-2002
▲광주유권자산악회 경남 통영 소매물도 등대섬 4월20일(일) 7시 대인광장 출발(문예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광주유권자산악회 T.011-612-4252, 011-607-2200

4월 27일(일)

▲광주알프스산악회 경남 거제 소매물도 4월27일(일) 7시 대인광장 출발(두암동 홈플러스 경유) T.267 5307, 010 4616 1460

부 고

정대남(하동정씨추선문회회장) 아버님 용근께서 2008년 4월 1일 오전 2시 40분 경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일

발인일시 : 2008년 4월 3일
발인장소 :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장 지 : 광산구 본덕동 동곡 선영하

아들 딸 자부 사위

양영창자인철향덕숙문기대형
훈삼조영숙자자효효자원남익
김고남류최임이

연락처 : 062·363·0438
(개별부고생략)

제 권 판 결

사 건 2007카공 280
신청인 장덕초
여수시 교동 622

아래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12. 11. 공시최고를 하였는바,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8. 3. 24. 10: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종 류 : 약속어음
· 번 호 : 자가00855773
· 금 액 : 금6,000,000원
· 발 행 일 : 2007년 8월 3일
· 발행인및지급인 : 김평기
· 지 급 지 : 여수시
· 지급장소 : 신한은행
· 최종소지인 : 장덕초

2008년 3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유 재 광

40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본원출신 전국수석
【 응시생 156,000여명중 】 본원출신 송은영님 평균 96.7
개강 첫신도 지시민
주택관리사 첫진도 개강 : 4월1일 오전반 야간반
4월1일 기본시 이론 2개월과정
국비무료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수강료환급))) "현재 접수중" (((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